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표지 사진 · 오상오

우리에게 의지처가 있다는 것, 귀의처가 있다는 것
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삶은 중
심을 잃고 끝없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 법정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4 / 5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영혼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부처님 오신 날 특별 영화 시사회	07	피부색갈-골색
처음 마음으로	08	구도자의 본분은 수행(修行)
책 속의 책	14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아름다운 마무리	16	아름다운 마무리 - 신영하 어르신
내 마음속 풍경	18	홀로 남은 부모를 누가 모시지?
참교육 이야기	22	'헬리콥터 부모'를 아십니까?
알립니다.	26	맑고 향기롭게 CI · 길상사기 매뉴얼 북 안내
친जन난만	29	등공양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0	다시 음악 팬으로 돌아가보시면 어떨까요?
샌디에고 안팎	34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이여
사색의 뜰	38	타일 조각에서 길을 찾다.
향기나는 우체통	40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3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5월 1일 발행 / 통권 231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8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영혼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글·법 정(法 頂)

모든 수행자는 기도로서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산이다. 사람의 이성 과 지성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없 을 때 기도가 우리를 도와준다. 돌이켜 보니, 지나온 내 삶의 길목에서 나를 깨끗하게 받쳐준 것도 그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된다. 기도는 마음 에 평안을 가져올 뿐 아니라, 개체가 전체에 이르는 통로이기도 하다. 오늘 아침 나는, 어제 만난 어린 세 남매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한 월간지에 실린 기사를 읽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 밤에 잠 자리에 들었다가도 문득 그 애들을 생각하고 베갯잇이 젖도록 울었다.

사연은 이렇다. 야채 장사를 하던 부모가 차사고로 죽자, 별안간 고아

가 되어버린 어린 세 남매는 4개월 동안 고아원에서 지낸다. 한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 희망자가 생겨 덴마크로 떠나는 길이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네다섯 살짜리 어린 두 아이만을 원하기 때문에 맏이인 여덟 살짜 리와는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된다.

고아가 된 그 어린 것들이 다시 홀 어져야 하니 어린 마음들이 입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 비행기가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때 까지 불안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 던 여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 렸다. 출국 수속장 앞에서 두 주먹 으로 눈물을 흠지던 오빠와 떨어지 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던 동생이 다. 홀로 외롭게 공항에 남겨진 오빠

를 생각하고 그 애는 통곡을 한 것이 다. 함께 가는 어린 동생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승무원이 가져다 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가 누나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다.

이 가엾은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어린 쌍둥이 어찌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어제오늘 나는 이 가엾은 이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앓는다. 이 땅에서는 그 애들을 받아줄 집이 없어 생 나무 가지를 찢는 아픔을 보면서 그 어린 것들을 낫선 먼 나라로 떠나보 내야만 하는가. 우리도 이제는 살 만큼 사는데 언제까지 고아 수출국 노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듯한 가책에 나는 괴롭다.

부디 좋은 양부모를 만나 구김살 없이 튼튼하게 자라주기를 빌었다. 홀로 떨어진 여덟 살 만이라도 아픈 상처를 딛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뻗혀주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소극적이지만

그 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 구나.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절한 소망이다. 따라서 기도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은 그 울림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고 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필요 없다. 오로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순간순간 간절한 소망을 담은 진지한 기도가 당신의 영혼을 다스려 줄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필요한 것은 침묵이다. 말은 생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흐트러 놓는다. 우주의 언어인 거룩한 그 침묵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되 게 한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의 어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 영혼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하루를 여는 아침의 열쇠

이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의 빗장이다.”

며칠 전,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 중인 한 친지로부터 엽서를 받았다. 단체 여행이라 하루에 열 시간 이상 버스로 또는 기차로 달리는 강행군 이었는데, 어느 날 기차에서 만난 인도의 어린 소년, 소녀가간디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혼잡한 기차 칸인데도 오누이가 합장을 하고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마하트마 간디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걸 적어달라고 했단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인도는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인도 사람들은 우리 형제이고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인도를 사랑하고 그 풍요롭고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항상 그 가치를 존경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모든 어른들을 존경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

다. 그 분들의 평안과 번영이 곧 내 행복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날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이다. 2백 년 동안 영국의 혹독한 식민통치 아래서도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 고유한 의상과 생활 습관과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저력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정신 속에 깃들어 있었을 것이다.

기도문의 마무리에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 합니다. 그분들의 평안과 번영이 곧 내 행복입니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다. 나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나 자신은 나라와 국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염원을 지니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아무리 우리가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끼고자 할지라도, 안으로 자기 나라와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길은 아득하다. 사랑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끝없는 관심ियो, 끊임없는 배려다.(생략)

-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피부색깔=꿀색

이 영화의 제목 '피부색깔=꿀색 (couleur de peau=miel)'은 감독 융에낭(Jung Henin, 한국명 전정식)이 입양될 때 그를 설명하는 한 줄로 백인들 틈에서 구별 가능한 피부색깔로 그를 특징지었던 표식입니다.

해외입양을 소재로 아동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역만리로 보내지는 현실과 상실된 아이의 주권을 상기시키는 쩡한 감동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소대합니다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벨기에로 입양된 소년 '웅'의 자전적 이야기 '피부색깔=꿀색' 영화 시사회를 5월 6일(화) 오후 5시에 길상사 설법전에서 마련합니다.

'피부색깔=꿀색'은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의 한 시장 거리에서 경찰에게 발견된 후, 5살 무렵 벨기에로 입양된 소년 '웅'의 자전적 이야기로써 감독이 수목화 양식으로 완성한 자전적 원작만화를 바탕으로, 벨기에로 입양되었던 어린 시절 양부모가 촬영한 홈비디오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감독이 한국 제작진과 함께 찍은 영상도 삽입하여,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애니메이션'으로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석권하였습니다.

구도자의 본분은 수행(修行)

글 • 덕 운(德耘)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영원한 행복과 자유로움과 청정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도 자유로움도 구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정함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세상의 모든 일들은 무상(無常)하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나 홀로의 절대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너져 없어지면 나까지 무너져 없어지는 무아(無我)의 존재인 인생을 어찌 행복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고(苦)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청정(淸淨)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피와 고름 등으로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청정한 것이 못되며 우리의 마음도 번뇌 망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코 청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부정(不淨)한 인생살이지만 우리는 이를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기 전에 영원한 행복과 자유와 청정함부터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 즉 뒤바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 꼬여가고 어려워져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

다. 눈앞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괴로움도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번뇌와 갈등으로 뒤덮여 불행하면서 행복한 척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사실 그대로 인식할 때 우리의 눈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임하려면 먼저 뒤바뀐 소견부터 버릴 것을 강조하셨고,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부정(不淨)을 넘어서 열반의 4가지 모습인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도를 닦기 원한다면 뒤바뀐 소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뒤바뀐 소견을 버릴 때 헛된 욕심이 사라져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도를 잘 닦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수

행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도(佛道)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헛된 욕심과 전도된 생각을 버리고 생사(生死)를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修行)하여 부처가 되는 방법에는 참선(參禪), 염불(念佛), 관법(灌法), 주력(呪力), 경전공부(經典工夫)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참선법으로써 종(宗)을 삼고, 참선법 중에서도 화두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옛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안(公案)을 잘 참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안(公案)은 곧 화두(話頭)를 말합니다.

화두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화두라는 말을 쓰지만 화두란 그 기원이 불교의 선

(禪)에서 온 말이고 그리고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도의 근원에 이르르게 하기 위해서 설정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 조사들께서 일러주신 화두, 이 화두에 의지하여 도(道)를 닦아가는 것을 화두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화두의 개념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두의 화는 말씀 화(話)자로서 말이라는 뜻이고, 두는 머리 두(頭)자로 앞서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두란 ‘말보다 앞서는 것’, ‘언어 이전의 소식’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흔히 책의 머리말을 서두(序頭)라고 하듯이, 참된 도를 밝힌, 말 이전의 서두, 언어 이전의 소식이 화두이며, 언어 이전의 내 마음을 스스로 잡는 방법을 일러 화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정의한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공안의 공(公)은 ‘누구든지’라는 뜻이고, 안(案)은 ‘방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안은 ‘누구든지 이대로만 하면 성불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던 믿지 않던, 복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부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진하면 결국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본분은 수행(修行)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행은 잘 먹고 잘 입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입으려 한다면 타락의 길로 빠져 듭니다. 먹는 것, 입는 것에 탐착하지 않는 수행자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제자라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번지레하고 풍족한 겉모습이 우리들의 수행과 인격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산스님과 낭주 자사 이고의 다

음과 같은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큼니다.

중국 당나라 때 약산 유엄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청원행사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유엄선사가 낭주에서 크게 도명(道名)을 떨치고 있을 때, 낭주 자사 이고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자사는 그 고을에서 가장 높은 벼슬입니다.

그러나 스님은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만나봐야 별 도움 될 것이 없으니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불심(佛心)이 매우 강했던 낭주 자사 이고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도인스님을 만나 뵈고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약산 큰스님의 허락이 떨어져 대면하는 순간, 수행하느라 바짝 마른 목골에 특별한 면이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스님의 걸

모습에 자사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별스럽게 생기지도 않은 양반이 사흘씩이나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구나. 그것도 이 고을의 자사인 나를…….’

이렇게 생각한 자사는 혼잣말처럼 슬며시 내뱉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 듣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그러자 약산스님은 자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 귀는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는가?”

이 말은 귀로 듣는 소문만 중하게 여기고, 지금 사물을 보는 눈은 천하게 여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즉 어찌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소문에만 의존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약산 스님이 자사 이고의 심정을 꿰뚫어보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에 이고는 ‘아차’싶어 큰 절을 울리며 참회하고, 꿇어앉아 여쭙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참다운 도를 깨

닫는데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도(道) 입니까?”

스님은 손으로 위와 아래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병 속에 있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사 이고는 크게 깨닫고 한수의 오도송을 지어 바쳤습니다.

鍊得身形似鶴形
연득신형사학형 하고
千株松下兩函經
천주송하양함경 이로다.
我來問道無餘說
아래문도무여설 인데
雲在靑天水在瓶
운재청천수재병 이네.

몸을 단련하여 학의 형상 얻으셨고 일천그루 소나무 아래에는 경전 두어 권뿐이로다.

내가 와서 도를 물으니 다른 말씀 없으시고

구름은 푸른 하늘에, 물은 병속에 있다하네.

약산스님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것도 갖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으면서 평생토록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천 번 단련하고 만 번 단련하여 도력이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한 수행으로 스님의 모습은 마치 학의 형상과 같았다고 합니다. 창백한 얼굴에 얼마나 말랐던지 온몸이 학의 몸처럼 여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과 수행을 닮고자 해야 합니다.

약산 스님을 처음 대할 때의 자사 이고처럼 도인의 모습을 겉모습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좋은 옷으로 몸단장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몸을 살찌우는 수행자야말로 도둑과 다름없

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잘 생기고 잘 입고 잘 먹어서 살찐 겉모습으로 수행자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신채 등의 냄새나는 음식과 살생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데는 분명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파, 마늘 등의 오신채를 날것으로 먹으면 진심을 돋우고, 익혀 먹으면 음식이 자꾸 동하며, 선신(善神)들은 이들 냄새를 싫어하여 멀리 떠나고, 이 냄새를 좋아하는 악귀신들이 주위로 몰려오기 때문에 재수가 없고, 수행에 방해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생한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이 죽을 때 내뿜는 원한의 독기를 같이 먹게 되므로 수행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잘 먹고 잘 입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뽐낸다면 그것이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구도에 장애만 될 뿐입니다.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수행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망각하여 흐리멍덩하게 지내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망하게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러한 투철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할 때 우리는 수행자로서 매일매일이 보다 새롭고 보다 각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상사 뜨락에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 여러분의 삶도 더욱 활기차고 빛나는 계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만 마칩니다.

- 불기 2558년 3월

초하루 법문(2014년 3월 31일)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

스코트 새비지 역음/김연수 옮김/나무심는사람들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엘모 스톨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다.

‘지금 이 세계는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길을 걷잡을 수 없이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지 의심하면서도 안전하게 뛰어내릴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꼴이다.’

아주 적절한 비유다. 요즘 이 땅의 권력 주변에는 온통 부정부패 일색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부정부패 공화국이라는 말이 더 실감 날 지경이다.

물론 이런 부정과 부패는 현 정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규모와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역대정권이 똑같이 밟아온 암흑의 길이다.

요즘은 신문이나 방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리가 날날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홀로사는 즐거움 중에서

우리는 자전거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도 매일 밤늦은 시간이 되어야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아이의 얼굴만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컴퓨터는 오히려 시간을 더 빼앗았고, 자동차와 전철의 등장은 통근 거리를 최대 두 시간까지 늘렸습니다. 편할 거라 생각했던 아파트 생

활은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분쟁을 하고 10년간에 걸친 용자금 납부라는 울가미로 옹매고 있습니다.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평균적으로 매일 한 시간씩 멍한 정신으로 출근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러고 또 저녁이면 원치 않는 술자리에 갔다가 늦은 시간 택시를 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정은 붕괴되고 청소년들은 길 거리를 방황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피곤합니다. 목적도 없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일하고 공부합니다. 그 틀 안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그대로 따라 갑니다. 이러한 모순된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플러그를 뽑는다고?

플러그는 전기 에너지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현대 사회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것을 뽑는다는 것은 현대 사회와의 결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침묵과 명상과 노동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책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의 필자들입니다.

17명의 필자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글은 관념적이거나 설교조가 아닙니다. 이미 주

류 문화의 바깥에서 자립적으로 소박한 삶을 살아왔거나 그렇게 살고자 선택한 사람들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릴 뿐이지만 그것은 모두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 책은 2001년 출간되어 현재는 절판되었지만,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귀농을 꿈꾸거나 자연과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은 헌책방이나 도서관에서 찾아 읽어보직한 가르침이 많은 책입니다.

— 편집자 주

「부처님 오신날」 행사 안내

- 하이브리드 애니메이션 '피부색깔=꿀색' 영화 시사회 / 오후 5시 / 길상사 설법전
- 친환경 체험마당, 녹색니눔장터,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 길상사 경내

* 선열당, 극락전 후원 설거지 봉사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마무리

5월의 결연 대상자 - 신영화 어르신

동네에서 '바느질 댁'으로 알려져 있는 신영화 어르신(84세)은 평생을 바느질로 바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는 30년 전에 사별하고 슬하에 1남4녀의 자녀를 두었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첫째 딸의 연령이 어느덧 6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10여 년 전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것을 기억하면 마음이 아픈 여러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옷 만드는 자영업을 운영하던 첫째 딸은 갑상선 암에 걸리고, 둘째 사위도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이혼하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하나 있는 귀한 아들은 몸이 아파 지방에서 노동일을 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지만 신영화 어

신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영화 어르신의 이와 같은 모습은 실은 어르신 혼자만의 기구한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핵가족화와 가족 해체의 현상이기도 하고, 자식들의 출세와 성공을 뒷바라지했을 뿐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만의 특수한 세대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늘 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해왔는데 정작 산업화의 열매인 사회복지,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유일한 보험과도 같았지만 이제 우리들의 가족 문화는 연로한 부모를 자식이 모시지 않습니다.

고령의 신영화 어르신은 골다공증, 고혈압, 요통, 어지럼증, 천식과 해소로 몸이 쇠약하신 편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천식이 있는 상태에서 감기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었고, 기절한 채 경희의료원 앰블란스에 실려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옆방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독거노인께서 119로 전화하셨기에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신영화 어르신은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 없이는 혼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영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는 매월 약 35만원, 보충금 200만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방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 월세를 납입하면 단돈 10만원이 남습니다. 이 10만원으로 공과금을 내며 한 달을 생활하셔야 했습니다. 보충금이 더 있다면 월세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연로한 신영화 어르신이 신경안

정제나 수면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채무 때문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전, 동네에서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던 어르신은 모아진 껌돈의 일부를 셋째 딸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따님은 결국 사업 실패로 파산했고 할머니가 책임져야 할 2,800만원이 고스란히 할머니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당시 계원 3명으로부터 빚 독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짓눌려왔던 상처로 애 타는 마음이 우리 신영화 할머니의 지금 마음이었습니다.

지난겨울,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어르신은 잠시 첫째 딸집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픈 몸과 놀란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혈육이 있어 감사한 일이었지만 딸에게 짐이 될까봐,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뻔한 일이기에 결국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 캠페인 일정 : 5월 6일(화, 부처님 오신날), 5월 25일(일) / 성북동 길상사 경내

홀로 남은 부모를 누가 모시지? -어느 예비부부의 한담

글 • 이경숙(수필가)

나중에 나중에, 우리 부모님 늙어지고 모시겠다던 자식 없으면 나라도 모셔야지. 까짓것 모시면 모시는 거지 못 모실 게 뭐 있어? 자식이 여덟이나 되는데 늙은 부모 내팽개치면 되겠어? 그런데 졸지에 만며느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시부모님도 모셔야 하는데? 모시지 뭐.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을 동시에 어떻게 모시지? 시골에 가서 2층짜리 집을 짓는 거야. 아래층에 부모님들이 거처할 방을 만들고 2층을 우리가 쓰면 되겠네. 그런데 아무래도 사돈들끼리 한 공간에 사는 게 편치는 않겠지? 그럼 거실과 화장실은 따로 쓰시게 하면 좀 나으려나? 뒷밭을 가꾸면 부모님들이 심심하시지는 않겠지? 마당에 꽃밭도 만들고 유실수도 많

이 심는 거야. 겨울에도 뭔가 소일거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다른 자식들 집을 순례하시게 하면? 그것도 괜찮네. 별별 상상을 다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은 모시겠다는 자식들이 여럿이라 일찌감치 짐을 벗었고 시부모님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앓아누우시면 마땅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성심껏 모시면 되지 않겠는가. 부모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알콩달콩하던 예비부부의 한담을 엿들었다. 버스 안이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보였는데 차안은 사람이 많지 않아 그들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그들은 결혼이

멀지 않은 것 같았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남자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여자가 눈을 번쩍 뜬다. 그런데 영 신통찮은 눈치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외에 시부모님과의 동거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난 싫어. 오래오래 신혼을 즐기고 싶어.”

일순,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렇지만 부모 모시는 일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화를 내거나 거칠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홀로 남으시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여자의 반응이 사뭇 궁금해진다. 모신다고 할까? 아까 얘기하는 걸로 보면 시부모를 모시고 싶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자가 의외의 대답을 한다.

“그뎨 모셔야지.”

하지만 뒤에 꼬리말이 붙는다.

“그런데 오빠는 우리 부모님이 한 분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시부모님 한 분이 먼저 떠나시고 홀로 남게 되면 모셔야겠지만 자기네 부모님이 같은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다. 남자는 처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듯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셔야지.”

하지만 그걸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뭔가 미심쩍다는 듯 여자가 다시 묻는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자기네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사는 거야?”

남자가 갑자기 심란한 모양이다. 자기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볼까 하고 던지시 말을 건넸는데 처부모까지 덩으로 모시게 생겼지 않는가. 그런데 양쪽 부모를 한꺼번에 모신다는 게 어디 말같이 쉽겠는가. 남자, 포기하듯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살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남자는 자기 부모를 기꺼이 모실 의향이 없는 예비신부가 마땅치 않은 거고, 자기 부모만 모시고 싶어 하는 예비신랑의 속내를 들여다 본 여자 역시 씩씩하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남자가 다시 얘기를 꺼낸다.

“너 밥이나 할 줄 아냐?”

여자, 당당하게 응답한다.

“짜짜게티랑 라면이랑 할 줄 알아.”

남자,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여자를 쳐다보며 다시 묻는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밥! 밥할 줄 아냐고?”

여자, 짜증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반응이 격해져 따발총처럼 쏘아댄다.

“강 쌀 넣고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냐?”

남자가 긴 한숨을 쉬며 다시 묻는다.

“너희 집 전기밥솥 써?”

여자가 당당하게 응답한다.

“전기밥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쿠쿠야!”

남자, 더 이상 어떤 말도 묻지 않는다. 먼저 나는 대화에 대한 여운일 것이다. 웃어야 할 상황이지만 남자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질 않는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변을 두루 돌아다보지 않을 수 없다. 부모, 형제가 모두 포함되어 가족을 이루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시는 일 뿐 아니라 시집이나 처가형제들 문제로도 다툼이 일거나 부부간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연인이었을 때의 호기로 될 일이 아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지 않는가. 사랑만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선뜻 처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남자는 흔치 않다. 아예 딸만 있는 집도 있고 하나쯤 아들이 있더라도 부모를 모실 의향이 없거나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처부모들은 어찌 해야 할

까. 자식에게 기댔 생각일랑 아예 꿈도 꾸지 말고 자생하는 수밖에 없다. 자식들에게 몽땅 다 털어주고 나중에 돌봐주지 않는 자식들을 원망하며 한탄할 게 아니라 내 살 궁리를 해

야 한다. 늙고 병든 것도 서러운데 짝 신세가 되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는가. 하긴, 아들 가진 부모라고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더라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을 함께 펼칠 사회복지 및 NGO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1. 모집대상

- 활발한 성격을 지닌 대학생,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월 2회 정기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

2. 활동내용

- 매월 마지막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월 2회 진행 예정
- * 단, 법정 공휴일이 없는 달의 경우 첫째 일요일에 캠페인 진행
- 활동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 캠페인 장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경내
- 기타 :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캠페인 홍보 병행

3. 캠페인 목적

- 우리나라는 9년째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로 하루 평균 자살자수가 43.6명
- 노인자살률과 노인 빈곤률(각각 세계 1위)이 자살 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진단된 상황
-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독거노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조성
- 법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을 나눔의 기부문화로 계승
- 모집된 기부금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결혼후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사례관리 등 사업비로 전액 집행

4. 접수

- 모집 인원 : 0명(남녀 구분 없음)
- 문의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헬리콥터 부모’를 아십니까?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헬리콥터 부모’를 아십니까?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자녀가 원하기도 전에 미리 채워주는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아이를 떼어 내야할 시기에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옆을 지키며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말하기도 전에 제공해 주고 또 무언과 먹고 싶다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 물려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저하 시키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는 이런 부모는 없을까요?

‘인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잃어버

리고 놀이도 잃어버리고 아이디어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양계닭’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너무나 일반화된 플라스틱 장난감과 교육용이라는 미명하에 제공되는 각종 교재 교구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좋은 유치원 찾기’에 소개된 ‘장난감을 버려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장난감 가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없는 게 없습니다. 수백만 원씩 하는 고가의 장난감이 있는가 하면 레고, 드레곤 볼, 공룡을 비롯해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고 이름도 생소한 온갖 낯선 장난감

들이 방에 한가득입니다.

마산 YMCA 어린이 유치원에서 10년간 세상과 소통하고 좋은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살아 온 ‘우리아이 좋은 유치원 찾기’ 작가 허은미 선생님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뛰어 놀며 자연스럽게 배워야 합니다. 이 시기 만큼은 꼭 그래야 합니다. 자연에서, 자연이 주는 섭리와 교훈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식공부가 아닌 마음공부로 마음속의 그릇을 크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와 풀, 산과 들, 하늘과 별과 달, 꽃과 작은 생명들까지 자연에는 삼라만상의 학습재료가 가득합니다. 함께 부대끼며 사계절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바라보며 자연이 가르쳐 주는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지도 모르게 배우는 교육이 최고랍니다. - 본문 중에서

서너 살이 되기 바쁘게 유치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원정출산에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를 잘 하기 위해 헛바닥수술을 하고, 채 걸음마도 하기 전에 어린이 집으로 내 몰리고……. ‘지면 안 돼!’ ‘너만은 세상에서 가

장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하며 없는 것 없이 해달라는 대로, 아쉬운 것 없이 자라는 아이들……. 아침마다 아파트 출입구에는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학원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 학교를 마치고 아파트 놀이마당에서라도 뛰어 놀아야 할 텐데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습니다. 하루에 두서너 곳에 많게는 5~6곳의 학원으로 다니며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일등을 해야 해! 영재학교로 자사고로 특목고에 가야 해!’라며 등 떠밀어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모는 엄마의 등살에 아이들은 설 틈이 없습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좋은 유치원 찾기’를 보면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밥이니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아이들은 놀이를 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놀아야 사회성도

발달하고 상상력, 인내력, 집중력, 협동심, 상황 판단력, 논리력 등 부모가 바라는 여러 배움이 생긴다'는 놀이 운동가 편혜문선생님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면 불안합니다. '공부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입니다. 친구들은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논술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데, 수학선행학습도 하고 논술공부도 해야 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쳐야 한다며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어린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학원으로 가는 게 아이들이 가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엄마들의 성화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치고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떤 유치원에 보내세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된

부모들은 한두 번쯤 고민을 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인지…….'

시설이 좋고 원비를 많이 내는 유치원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잘하는 유치원일까요?'

'요즘 유치원에는 재롱잔치며 공개수업이며 갖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재롱잔치야 일년에 한번 뿐이더라도 공개수업은 종류도 많습니다. 영어마을, 미술작품 전시회, 부모 참여수업, 운동회, 사랑의 바자회 등 보통 적게는 한 학기에 2~3개, 많게는 5~6개나 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주일에 한번 씩 견학도 가고 수영수업도 하고 농산물 체험 캠프와 사계절 캠프에도 가는 등 야외수업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직도 코흘리개인데, 유치원 행사에 나가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부모들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아이들이 정말 교육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 본 부모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출연을 위해 대기실에서 긴 시

간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렇게 잘 해내기 위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본 부모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출한 전시회나 수업, 이런 게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학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분신이기에 전에 하나의 인격적인 독립체입니다. 아이의 적성이나 취미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기준에서 입학도 하기 전에 온갖 학원에 보내 만능 인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옳을까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두뇌에서 '뇌량'이 어느 정도 자라야 좌우뇌가 통합되어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살이 채 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문자를 익히게 되면 두뇌의 뇌세포에서 시냅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축되고 작아져 '실증', '협오',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팔랑귀가 된 엄마 때문에 아이들의 의지와 다르게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아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못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어려움에서 보호하려다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리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 부모가 먼저 아이를 품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훨훨 날아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챙겨주고 밥도 떠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용변 뒤처리까지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헬리콥터 부모는 결코 아이가 완벽한 인격체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CI • 길상사 TI 매뉴얼 북 안내

1994년 3월 26일 맑고 향기롭게 창립 강연회를 시작으로 연꽃 스티커가 전국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꽃 스티커는 완성되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매뉴얼 북은 인식의 차이로 인해 제작되지 못하고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CI(Corporate Identity)와 TI(Temple Identity)에 있어 매뉴얼 북은 교과서이자 나침반이며 이정표입니다. 매뉴얼 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방만한 오, 남용을 허용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의 연꽃 심볼캐릭터(symbol character) 디자인 매뉴얼 북은 연꽃 스티커를 도안한 조선대 미대 고현 교수님이 2012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연구하였으며, 맑고 향기롭게 창립 20주년을 기하여 공표

하게 되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character)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법정스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캐릭터)는 진흙 속에서도 한 점 티 없이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 마음, 세상, 자연이 두루 맑고 향기로 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상징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외국인에게도 알리기 위해 영문캐릭터도 제작하였습니다. (상표등록번호 제41-0133884호)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심볼 마크 (symbol Mark)



본 심볼은 '맑고 향기로운 연꽃처럼 살자'는 법정스님의 말씀에 따라 ①팔정도(八正道)의 상징으로 8개의 꽃잎과 이제 막 피어난 형태를 그린 것입니다. ②상단의 9개의 별은 「9가지 실천덕목」을 뜻하고 그 중에 흰별 3개(큰 별)는 '마음, 세상, 자연' 세 줄기를 뜻합니다. ③「진 주황」의 색채는 가장 일반적인 '홍련' 색채를 내포하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뜨거운 심장', 즉 우리들의 마음 각오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이기에 심볼 역시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상표등록출원번호 41-2014-0001194호)

맑고 향기롭게 로고 타입(Logo type)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pge

세종대왕 한글 창제시 최초로 사

용된 '갑인자' 글꼴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쉽게 읽히고 친근감을 주기 위해 받침 글과 높이를 차별화 하였으며, 현대적 감각으로 접근하여 한글 로고타입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법정스님이 '맑고 향기롭게'를 영작할 때 우리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기로 하신바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문화의 보급이라는 의미와 법정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세계에 파종하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길상사 로고 타입(Logo type)

吉祥寺길상사 KILSANGSA

본 로고타입은 한국 서예계의 대가 여초 김응현(1927~2007) 선생이 직접 쓴 일주문 현판 '삼각산 길상사'에서 채집하였습니다. 이미 한자 예서(隸書)체로 상당부분 홍보 되어있고, 그 글씨체가 매우 균형 잡힌 명필로, 로고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백, 글자크기, 자간 등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한글 서체는 판화가 이철수

의 글씨를 부분 정리했고, 영문자는 한글, 한자와 가장 유사한 서체로 개발하였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 길상사 시그니춰 (Signature)



시그니춰는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일정한 기준에서 상하, 좌우로 조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 기본적인 표식은 심볼마크이고 로고타입은 명칭을 명확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일러스트 캐릭터 '연풍(蓮風)'



①일러스트 캐릭터 '연풍'을 새로 개발한 것은 연꽃과 별을 펼친그림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함이며, 심볼을

보좌하고 주연을 돕는 조연의 필요성 및 향후 개발될 문화상품의 어시스트를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연꽃 스티커를 토대로 쉽게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연꽃들이 한쪽으로 기운 듯 '바람'이 느껴지는 것은 인위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옮기고자 표현한 것입니다. (꽃은 백련을 상징)



②본 일러스트는 독립되어진 포스터, 책표지, 현수막, 브로슈어 등에 사용됩니다. 심볼과 동일한 연꽃에 물그림자를 넣어 회화성을 높였고, 붉은색 계열을 주로 사용하되 여름철에는 녹색계열을 권장합니다.

매뉴얼 북에는 '캐릭터, 심볼, 로고, 일러스트'를 근본으로 시각이미지 정립에 기본이 되는 모든 그래픽 요소에 관한 활용지침과 각종 대외활동 및 실무에 직접 사용되는 구체적 인 세부지침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등공양

맑은 만남(淸逢)



나 는
 변 서
 밝 지
 등 공 양
 하 는
 너 의 기



박효신, 이선희, 이소라, 이승환, 이은미, 임창정, 조성모의 새 음반 -다시 음악 팬으로 돌아가보시면 어떨까요?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최근 박효신, 이선희, 이소라, 이승환, 이은미, 임창정, 조성모가 거의 한꺼번에 새 음반을 내놓았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대개 2~3년에 한 번씩 새 음반을 발표하는 것에 비하면 오랜만에 새 음반을 내놓은 셈이지만 아주 오랜만에 음반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이 그동안 음악을 하지 않고 쉬고 있었거나 다른 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새 음반의 간격이 조금 길기는 했지만 꾸준히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다만 TV를 비롯한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팬이 아니라면 잘 볼 수 없었던 이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는 전설

들이 돌아왔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다 똑같지는 않았고 인기 정도도 조금씩 달라서 이들을 모두 전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인기 정도로 치자면 이선희와 조성모, 임창정이 가장 인기 있었고, 박효신, 이승환, 이은미, 이소라는 그보다는 조금 못했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이선희는 1980년대에 활동을 시작한 뮤지션이고 다른 뮤지션들은 1990년대에 활동을 시작한 뮤지션이라 활동 시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들 모두가 큰 인기를 누렸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특정한 음악 장르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보편적인 대중가요, 그러니까 팝 음악을 해왔다

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전설이라고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빅스타였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의 새 음반 소식이 화제가 된 것일까요? 사실 2009년에 이선희의 14집이 발표되었는데, 그 때는 이렇게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뮤지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라도 2008년에 새 음반을 발표했고, 이승환 역시 2010년에 10집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화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들의 새 음반 소식이 화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저 이들이 오랜만에 음반을 발표해서일까요? 이들의 이전 음반에 이만한 관심이 쏟아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단지 오랜만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꺼번에 새 음반을 발표하면서 어떤 유행 같은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

면 이들의 음반에 대해 반응하는 이들이 예전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의 직전 음반에 무심했던 언론이 이렇게 열띤 보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직전 음반을 발표했던 2000년대 말과 지금까지의 5년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면 대통령이 바뀐 것이지만 대통령이 바뀐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은 다들 쓰고 있는 핸드폰이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뀐 것일 것입니다. 이제는 다들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정보를 찾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결제를 하고 연락을 하는 일이 훨씬 일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굳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음반을 사서 듣는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컴퓨터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는

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 음악 듣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편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도 훨씬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청장년세대들은 아이돌이나 인디 음악처럼 청소년이나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음악들이 아닌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찾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김광석 같은 그 세대를 대변하는 뮤지션들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TV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잘 빠르게 눈치 채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MBC에서 방송한 <나는 가수다>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돌 뮤지션들이 거의 점령해 버린 TV 음악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한 세대의 대중들이 알만한 뮤지션들이 나와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다시 부르으로써 청장년세대들도 가까이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슈퍼스타 K>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미션 곡

으로 과거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TV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청률만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린 노래가 곧바로 온라인 음악 시장에 음원 단위로 판매되어 팔렸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이들이 노래들을 TV에서 본 다음 스트리밍 서비스나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재생했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0대 이상의 청장년 세대가 다시 대중음악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 해 조용필의 새 음반에 쏟아진 폭발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조용필 역시 올해 새 음반을 내놓은 중견 뮤지션들처럼 꾸준한 음반을 발표했음에도 2000년대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얻지 못했는데 지난 해 내놓

은 음반에는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10만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면서 2013년을 조용필의 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그의 노래를 듣던 이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악 팬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청장년 팬들의 존재 때문에 박효신, 이선희, 이소라, 이승환, 이은미, 임창정, 조성모의 새 음반 소식도 화제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한꺼번에 새 음반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 음반을 내놓으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반응이 있겠다고 기대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청장년 세대의 음악 팬들 중에서도 분명 스마트폰으로 이들의 새 음반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들어보시니 어떻던가요? 대중음악의 전문가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음반들이 그들 각자의 최고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작이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이들의 새 음반들은 모두 각자의 장기를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의 음악답게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노래나 연주, 녹음 모두 손색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이승환의 새 음반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데 들어보시면 각자의 취향과 안목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대체로 무난하고 평이하게 나온 음반들에 반해 강렬한 록 음악으로 방향을 튼 이소라의 새 노래를 들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예전부터 좋아했던 뮤지션들의 새 음반을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 더 훌륭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옛날부터 활동했던 이들의 새 음반을 징검다리로 새로운 음악으로 충충충 건너가 새로운 음악을 만나는 기쁨을 만끽해보세요. 세상은 넓고 좋은 음악은 무궁무진합니다.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12년 동안 16번의 이사를 하며 우리 가족은 역마살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다. 새 근무지로 금방 이사하지 못하니 가족이 떨어져 살곤 했다. 지금 돌아보아도 신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러운 단체생활이라 사택에서 손뜨개질이나 실컷 했던 세월도 있었다. 광주의 변두리 사택에서 버스출근하다 일어난 작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나의 교사생활도 접었다. 친정어머니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시니 딸을 맡길 데가 없어 주부로 전업해야 했다. 작은 꿈이 있다면 언제면 안정된 내 집에 사는 날이 올까.

이민 오고 세 번째 집으로 이사 와 그때야 한국에서 가져온 짐 보따리를 마음 놓고 풀었다. 그리고 마음속

으로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기를 희망했다. 뜰이 넓어 은근히 정원 일이 걱정되는 남편이 투덜대기는 했지만, 긴 세월이 흐르니 우리의 작은 삶터는 조금씩 행복한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샌디에고에 와서 처음 반하고 놀란 꽃, 부겐빌리아(Bougainvillea). 단어가 긴 이름의 꽃이어서 몇 년 동안 중얼대며 외웠다. 꽃잎이 얇은 종잇장처럼 보이는 나무가 우리 집에 여러 그루 있다. 골목에 있는 꽃은 해마다 피는데 현관의 입구 벽에 심어진 나무에서는 꽃을 볼 수 없었다. 관찰해보니 햇볕이 부족해서 피지 않았다. 오래 자란 고목이라 아깝지만 두 그루 중 하나는 집 가까이 뿌

리가 들어와서 파내어 버리고, 한 개만 키우기 시작했다. 나무형태를 바꾸어 현관 밖으로 기둥처럼 높이 끌어내어 햇빛을 보게 했다. 꽃이 잘 피는 비료도 주었더니 만발하여 때문에 들어서는 손님마다 꽃의 이름을 물었다.

꽃의 역사도 흥미롭다. 프랑스의 해군 제독이자 탐험가의 이름인 루이 앙투안 부겐빌리아에서 따왔다고 한다. 그와 함께 애인을 데리고 항해를 간 프랑스의 식물학자 필리버트 커머컨이 발견하여 알려진 꽃이다. 커머컨이 지난날 함께 갔던 해군 제독을 기리며 훗날 꽃의 이름을 만들었다니 얼마나 의미 있는 영웅의 꽃인가. 당시 항해의 규칙에 여자는 배를 탈 수도 없었다는데, 애인에게 남성 복장을 입히고 배를 타게 허락해 준 함장과 식물학자간의 우정의 깊이는 어땠을까. 참, 복이 많은 분들이다. 훗날 식물학자랑 비밀스럽게 배에 탔던 여자 친구도 최초의 여자 탐험가로 자랑스럽게 기록되었다. 역사는 이토록 거짓이 아니라 진

실한 이야기를 후세에 남겨 주고 기록되어야 하리라.

오래 전 미국인 친구가 라메사 시의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던 곳에 200년이 된 황금 색깔 부겐빌리아 고목이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약 삼십 년 전 그곳에 커다란 자동차 판매장이 들어서며 우아한 나무가 사라져 버렸다. 미국에 처음 이민 온 황금색은 흔하지 않다며 친구는 아쉬워했다.

우리 집 현관 입구의 나무도 일년에 서너 번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아치형의 우산처럼 모양을 만들며 나는 조각가가 된다. 물이 없어도 자라는 부겐빌리아는 줄기에 가시가 있다. 강하여 내손과 팔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보살피는 일은 즐겁다. 추위에는 약해서 이상기온의 겨울엔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수난은 우리 집에 쳐들어 온 흰개미와의 전쟁이었다.

흰개미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 정원에서 자른 통나무들을 벽난로에 사용하려고 집 벽

가까이 놓아두었던 탓이다. 죽은 나무에서 살던 흰개미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올 줄이야. 소중한 우리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흰개미에 대한 공포로 떨던 그날들. 터미트(Termite), 흰개미가 집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독한 약을 뿌리게 되니 기술자는 현관의 부겐빌리아 나무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당시 사십년이 지난 고목인데, 약을 치는 회사의 명령대로 대형 천막을 집 전체에 덮을 수 있도록 나무의 몸체만 남겨놓았다. 제발 죽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신문지로 감싸주면서.

그런데 얼마 후,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아, 나도 부겐빌리아 꽃잎처럼 하늘을 훨훨 날고 싶었다. 2000년대 초, 나는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거의 일 년을 식물인간처럼 살았다. 너무 어지러워 운전을 하지 못하니 홀로 나갈 수가 없고 해서 아예 세상 떠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다. 그동안 스트레스도 많았기에 허망한 삶의 모든 걸 포기해 버렸었는데, 어느 날부터 나의 머리가 서서히 맑아지고 있

는 게 아닌가. 부겐빌리아 꽃나무도 독한 터미트 약을 털어내고 사정을 헤매던 나처럼 놀라운 생명의 싹을 틔우다니! 기적처럼 살아난 나도 전처럼 운전대를 잡고 밥도 잘 먹으면서 수필을 쓰며 사랑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직도 부겐빌리아의 연약한 꽃잎처럼 못된 사람들로부터 쉬이 상처받고 원형의 내 모습을 가끔 잃어버리는 게 큰 탈이긴 하지만.

포엽식물인 부겐빌리아의 잎이 변형한 아름다운 꽃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을 이겨냈을까. 진짜 꽃은 가운데에 있는 씨래기처럼 작은 별 모양의 하얀 꽃술이다. 달콤한지 꿀을 빼는 벌새가 종종 날아와 멋들어진 자세로 내 눈을 유혹한다. 화려함을 홀로 보기 아까워 사진기에 담으며 사랑도 뿌려준다. 옛사람들은 위로 높이 기어가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나는 꽃이라 불렀다니, 비록 향기는 없지만 신비의 꽃이 아닌가.

나도 절망의 늪으로 빠지지 않으려니 때론 외롭지만 지혜롭게 이겨내야

한다. 실핏줄이 보이는 투명한 꽃잎을 만지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꽃. 얽은 덩이 꽃들이 절정으로 화려하게 피었다가는 나비처럼 살포시 바람에 실려 마당으로 떨어진다. 낙화가 지저분하다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꽃이 지는 모습도 사랑한다. 저 작은 꽃의 죽음을 감히 인간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은 아침마다 배달된 신문을 주우며 현관에 어질러진 꽃잎을 말없이 비로 쓸어준다. 요즈음은 그도 우리 집 꽃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

졌다.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꽃 쓰레기를 치우는 그의 뒷모습을 몰끄러미 본다. 우리의 결혼생활도 꽃나무 나이처럼 철들어 가는 것일까. 꽃이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이 꽃이 되었을까. 요즈음은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집을 꿈속에서 자주 본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게 부모님께서 돌보던 꽃집처럼 나의 인생도 집도 가꾸면서 살아야 하리라. 오, 작가의 꿈이 있는 지성의 집으로. 부겐빌리아 꽃잎이 살포시 날아

“저소득 라녀와 함께하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교실” 함께하는 봉사자 모집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학업만큼 외모가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속속 생겨나고 있어 아이들이 기초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조화장품까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화장품 남용 및 잘못된 사용방법은 피부에 자극을 주고, 피지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여 여드름,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에 아이들에게 맞는 화장품 사용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화학성분이 전혀 없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 올해부터 봉사자와 함께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세계일화실(맑고 소모임방)에서 성북구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천연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반화장품이랑 천연화장품의 다른 점, 우리가 천연화장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절에 맞는 천연화장품 또는 천연비누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민감한 저울 사용 및 재료 첨가, 핫플레이트 사용이 아직 쉬운 일은 아니기에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고요, 이 외에도 매 월 녹색나눔장터용 천연화장품 만들기, 나눔용(탈북어린이 생활공동체시설) 천연화장품 만들기 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이 가능하신 분은 함께 활동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일 조각에서 길을 찾다.

글 • 김정진

이곳은 서울남부교도소 내 직업훈련소.

저는 2014년 상반기 6개월 과정의 '타일'반에서 6월초에 있을 국가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육실 벽면을 본떠서 만든 'ㄱ'자 모양의 모형 벽면과 그에 해당되는 바닥에 특수 시멘트를 사용해서 타일을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며 눈에 익도록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색의 온전한 타일들만을 이용해서 그저 평평하게 붙이는 것만을 연습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색깔의 타일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가공해서 벽면에 각종 무늬도 넣고 바닥에 배수구멍도 만드는 등의 연습을 합니다.

처음 작업을 시작하면 우선 a4용지

크기의 도면을 한 장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도면에서 타일 가공이 필요한 부분을 실제 타일 크기로 제도용지에 옮겨 그리고요. 이 '현치도'에 맞춰 타일을 가공 한 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타일을 가공하다 보면 벽면에 들어가는 무늬의 모양이나 급수구멍, 배수구멍 등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자그마한 타일 조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폭이 좁고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부터 삼각형 모양, 좌우로 기다란 초승달모양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타일 조각 하나의 가치가 온전한 크기의 타일의 가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타일작업에서는 일단 완성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능사시험에서는 일단 완성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각종 요소를 평가하여 합격, 불합격을 가린다고 합니다. 미완성된 작품은 아예 평가의 대상조차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모양의 타일조각일지라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의 제 신세는 말하자면 볼품없는 모양의 작은 타일 조각과도 같습니다. 실형만 두 번째로 살고 있는 전과4범의 재소자. 올 가을에 출소하더라도 그야말로 가진 것 하나 없는 무일푼의 43세의 중년.

언뜻 생각하기에 별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암담하기만한 인생입니다. 실제로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아무 쓸모도 없게 느껴졌고, 이 세상에 제가 있을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타일을 배우면서 인생에 대

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타일 조각일지라도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처럼 저 역시도 어딘가에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커다란 온전한 크기의 타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듯하게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굳이 제가 온전한 타일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음을, 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의 완성을 위한 필수요소일 수도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사회에 복귀하기에 앞서 타일을 공부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깨달은 교훈을 결코 잃지 않고 제 삶에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요한 저만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으로 배운 이 교훈이 결국엔 저를 살리고 저를 가치 있게 했노라고 회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 스스로도 잊어버린 채 시간에 끌려 다니다, 날이 저물면 그제야 본연의 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네요.

지난 1월에 보내주신 책을 두 번 세 번 보면서 가슴속에 카르마를 지우기 위해 성의를 다해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법정스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들어 새삼 가슴 뭉클하게 와 닿습니다.

저는 그냥 법정이란 명호를 보거나, 듣거나, 부르면 가슴이 찡해지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넉넉함을 느낍니다.

전 불교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처음 보게 된 스님의 '무소유'를 읽게 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불교 교육은 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 작은 노트에 법정스님 글귀들을 적어놓고 가끔 흰 종이에 다시 써보면서 제 방식대로 스님을 그리워 해봅니다.

작년 봄에는 느끼지 못한 그리움이 마음에 구멍이 뚫린 듯 시린 찬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옵니다. 봄이 다 되었건만 왜 이다지도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움도 깊어지면 병이 되나요?

스님 책 글귀 중에 탁발의 원칙을 보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대문간에 서 있다. 달리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다.” 라는 글귀가 있기에 노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되뇌어 읽다보면 왜 끝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걸까요?

눈물이란 놈 이제는 제 마음도 몰라주나 봅니다.

탁발의 원칙을 보면 '무애자재'하는 불교인의 처음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

는 것 같아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회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처럼 죄를 짓고 수용시설에서 죄를 참회하는 사람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담당자님께 간절하게 소원 드립니다.

청명과 곡우 절기가 다가올수록 이곳에서도 봉축법회 준비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올 봉축법회도 회향할 수 있는 좋은 날 되기를 염원하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맑고 향기롭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목포 교도소에서 행일 합장

봄이라긴 하나 아직도 추위는 여전한 이때.

개울가에 파릇한 풀잎은 새 희망에 벅찬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초가삼간 오두막살이에도 햇살은 비추이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도 정녕 봄은 왔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녀 지금까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28세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곳에 수감 되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부석사에서 힘들게 108배를 합니다. 저희 할머니 연세는 87세입니다. 부석사에 있는 불상을 찍어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부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법요집과 불교책 그리고 염주를 받고 싶어 이렇게 부탁을 올립니다.

불교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짧은 부탁의 글 이만 줄입니다.

- 목포 교도소에서 김○○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와 동봉한 '산에는 꽃이 피네' CD도 잘 받았습니다. 받은 즉시 CD를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스님의 책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편집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 내당동에 살고 있는 1919년생 서두록입니다. 불명은 서법안정, 구산스님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송광사 보조국사스님 기일 때마다 친한 보살님들과 매년 봄이면 참석했었습니다. 이젠 그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길상사에 가보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늙은 몸이라 기력도 능력도 없어 혼자 다니는 것이 두려워 집에서 기도 드리고 불경 읽고 운동하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들의 위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이에 이 건강 유지하는 것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하고 혼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길상사 스님들과 맑고 향기롭게 모임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서두록 씀

편지와 더불어 예전에 써 놓으셨다며 재미와 아량으로 봐주십사하시며 '비둘기의 생태'라는 제목의 장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면 관계로 담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편집자 주)

2014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거행하였습니다.

법정스님께서 주창하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취지와 길상사를 무주상보시한 故김영한(길상화 보살)님의 송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로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4월 18일 길상사 도서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 까지 총482명의 학생(총지급액 약7억3천여만 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뛰어난 성적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으로,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하고 있는 32명의 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여식에 앞서 지난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에 애도하는 입정의 시간을 가지면서, 실종자 모두가 우리 곁으로 되돌아오기를 다함께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이신 덕운(德耘)스님께서는 장학생들에게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특권이며,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한 장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능력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길상화보살의 공덕비와 법정스님 진영각을 다함께 참배한 후 회향하였습니다.

▶ 1994년 ~ 2005년 : 총 24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2006년 ~ 2014년 : 총 233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1994년 ~ 2014년 장학금 : 총 482명의 중, 고생 / 총지급액 : 약 7억3천여만 원

* 장학금 통장 : 국민은행 817-01-0253-129
(새맑고 향기롭게)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하는

맑고 향기롭게 캠페인 안내 및 봉사자 모집
불기2558(201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본 모임은 당일 친환경 체험마당, 녹색나눔장터,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맑고 향기롭게 홍보활동, 피부색깔=꽃색 영화 시사회 등을 진행합니다.

친환경 체험마당으로는 천연치약 만들기,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체험이벤트등이 진행되며, 녹색나눔장터에서는 의류리폼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리폼용품(양치마, 가방, 파우치 등), 천연 화장품, 도서, 재활용 용품 등이 새로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와 장터에 동참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도 진행되며 해외입양에 대해 생 각해보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와 감독'옹과'의 대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불자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길상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고 향기롭게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극락전 후원에서 '설거지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뜻한 봉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실종자 구호물품 전달

'많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화원과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후원금으로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천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보온 잠바, 캔커피 등)을 많고 향기롭게 광주모임 봉사자들이 20일 오전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으로 직접 내려가 전달하였습니다. 덕운스님(많고 향기롭게 이사장, 길상사 주지)은 "이번 사고의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실종자분들이 모두 생환하기를 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구호물품이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길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모임 많고 향기롭게는 구조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차후 성금이나 물품 후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27일 길상사 경내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오전부터 자원봉사자 AT, 홍보부스 세팅, 동전 모금통 배포, 자

살예방 캠페인 서명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따뜻한 관심으로 손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마무리 브로슈어, 많고 향기롭게 스티커와 소식지를 나눠드리며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연속 9년째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을 본모임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널리 전파하는데 동참해줄 활발한 성격을 가진 대학생, 일반인 봉사자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곡청소년센터 아동들과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 안내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월곡청소년센터는 저희 많고 향기롭게가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이용 시설입니다.

올해부터 자연을 많고 향기롭게 사업의 일환으로 월곡청소년센터 아동들과 사용하지 않았던 옥상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상자 텃밭 가꾸기 활동과 더불어 친환경 먹거리 활동을 연계하여 일상에서 자연을 접하고, 텃밭을 가꾸는 즐거움과 함께 수확한 농작물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셋째 주 수요일에는 친환경 요리 활동 및 EM만들기 교실을 진행합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아이들과 처음 만나 텃밭 활동

에 대한 사전 모임을 가졌는데 "지구는 왜 HOT할까?" 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신문지로 화분을 만들어 상추씨도 심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해서 현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도 나누는 모습에 반가웠고 고맙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활동과 더불어 식막한 옥상에 재능기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벽화 꾸미기 활동도 진행합니다. 앞으로 월곡청소년센터 아동들과 함께 만들어갈 텃밭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부방 아이들의 간식 후원도 기다립니다. * 상자텃밭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으로 못쓰는 고무 큰 대야, 채반, 플라스틱 화분 등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2014년 무소유가행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숲가행)

올해에는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법정스님이 수행하셨던 사찰과 인연 있는 사찰 및 주변의 숲으로 총 6번의 가행을 떠납니다. 스님의 많고 향기로운 무소유의 삶을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 4월 5일은 효봉 선사를 모시고 수행정진을 했던 하동 쌍계사와 화계장터를 다녀왔으며, 5월 3일에는 소금 재고량을 가늠씩 물어 도움 주셨던 청도 운문사, 6월에는 오대산 월정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만 65세 이하
- 사전접수 : 숲가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부터 전화 접수
- 준비물 :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수, 돋보기, 필기구 등(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비 준비)
- 참가비(확정가) : 회원 35,000원
비회원 4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많고 향기롭게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시간 5월부터 변경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월곡청소년 공부방 아동, 중고등학생들과의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천연화장품 강좌시간을 5월부터 오전 10시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류 리폼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의류리폼봉사모임은 생활 속에서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지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이나 디자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의류 리폼봉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진행됩니다.



결식이웃 밑반찬 조리봉사 함께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가지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눠주시는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자원 활동 안내

- 진인요양원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놀이 활동을 합니다(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함께 출발)
- 모회원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함께 출발)/동참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상담해주셔야 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무료급식 자원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해피빈 - 콩이 만드는 행복한 기부

세상의 많은 콩 중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콩 '해피빈!', 해피빈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로 많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도 해피빈을 통하여 온라인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콩 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커지는 법. 언제라도 소외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면 해피빈을 통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http://happylog.naver.com/clean94.do>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 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닌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우편작업(1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피부색깔=꽃색 영화 시사회/ 5월 6일(부처님 오신 날)/오후 5시/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1,2,15,16,22,23,29,30일)/김치(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좋을 일복 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5,12,19,26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1,18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모회원(차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4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화요일(27일)/오후 1시30분/싯달타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5월6일(부처님 오신 날), 5월 25일(일)/길상사 경내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7,14,21,28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5월 25일(일)/길상사 경내
- 부처님 오신날 친환경 체험마당/5월 6일(화)/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고아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5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일로급식 및 웃음교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마무리
 - 룸비니동산(장애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케어,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5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지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1시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5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이동목욕활동/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5월 정기 활동 안내

- 도시락 나눔활동 - 매주 월요일~금요일/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활동
 - 공양 나눔 센터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5월 3일 (오후8시~10시)
- 염송다라니: 신묘장구대다라니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5월 10일 오후9시~5월 11일 새벽4시
- 장소: 길상선원
- 법사: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5월 10일 오후 8시30분~
5월 11일 새벽 3시50분
- 장소: 극락전
- 준비물: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5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매월 셋째·넷째 주말
5월 17일(토)~18일(일)
5월 24일(토)~25일(일)
- 참가비: 7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춘계관음기도 회향

- 일정: 5월 12일 오전 9시50분
- 장소: 극락전

백중아미타기도 입재 / 하안거 결제

- 일정: 5월 13일 오전 9시50분
- 장소: 극락전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안내



불기2558(201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어는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입니다. “동체대비의 사회적 실천과 자비 나눔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외된 이웃들이 많아지는 이때 ‘이웃과 사회를 향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또한 올해 연등 수익금으로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훼손되고 오염되어 죽어가는 뭇생명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오니 연등 하나 밝혀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연등접수는 종무실로 문의해주세요.)

아울러 부처님 오신 날, 신도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길상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중에서는 일손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시간이 되시는 신도님께서 따뜻한 봉사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망자와 실종자 유가족을 위로하는 분위기에서 부처님 오신날 ‘길상 음악회’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6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6월 7일	오후 7시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6월 14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6월 14일	오후 8시30분	극락전
지장재일	6월 15일	오전 9시50분	지장전
관음재일	6월 21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6월 27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백중 초재	6월 29일	오전 9시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타고난 부자와 갑작스런 부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전기를 아껴 쓰고, 자투리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동전 한 푼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맑고 향기로운 부자가 아닐까요?



맑고 향기롭게는 각 지역모임 실정과 형편에 맞게 노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모임에서는 독거노인 밑반찬, 김장 지원, 난방비, 의료비 지원, 차상위 독거노인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모임은 독거노인에게 점심공양 나눔 및 도시락 배달을, 경남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돕기 및 독거노인 결연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모임과 부산모임은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반찬을 나눠드리고 노인시설에서 자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길상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주머니’에 생필품을 담아 1,000여 가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동전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동전 한 닢부터 나누는 생활 속 실천운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전 모금통은 길상사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